

추모식사

권이혁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古下 先生님의 제 117회 탄신일 입니다. 이 자리에는 國家報勳處관계자를 비롯하여 여러 貴賓들이 모여 先生님을 追慕하고 있습니다. 매년 先生님의 誕辰日에는 數많은 분들이 모여서서 教育家·言論人·獨立運動家·政治家이신 先生님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고 이것저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답고도 價値있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先生님의 略傳이 奉讀 되었고 이 자리에 參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내로라 하는 人士들 치고 선생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 現實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先生님! 오늘날의 世界는 참으로 많은 變化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例外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比해 훨씬 더 많은 變化를 겪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들은 卓越한 리더십을 가진 指導者를 要望하게 됩니다. 先生님이야말로 이러한 指導者의 龜鑑이라는데 대하여는 蛇足を 붙일 나위가 없습니다.

先生님의 獨立精神이 特別했다는 사실도 世人들이 熟知하고 있습니다. 物産獎勵運動·文盲退治運動·民立大學設立運動들을 이끌어 가시고 東亞日報의 總帥로서 民族精神을 代辯하시고 鼓吹하신 일, 解放直前に 4次에 걸쳐 總督府로부터 政權引受交渉을 받으셨으나 拒絶하셨던 일들은 도저히 凡人들로서는 模倣할 수 없는 것이며 現代社會人들은 그저 말없이 우러러보는 歷史創造의 斷面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8·15 光復을 맞아 先生께서 建國創業의 理念을 밝히시고 民族陣營을 이끌어 나가시는 한편 東亞日報 社長으로서 나라 세우기에 心血을 쏟으셨던 일, 海外 亡命志士들의 還國迎接에 精誠을 바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값진 歷史的 事實로 刻印되어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暴徒의 凶彈으로 高邁한 55年 人生을 마감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先生님의 偉大한 經世方略과 治世精神은 오늘날에도 많은 人士들 사이에

서 膾炙되고 있습니다. 光復되던 해 12月 30日 卒地에 先生님을 잃었던 우리들의 아
깝고도 안타까웠던 心情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넘쳐흐르고 있는 現象은 至極히
自然스러운 順理라고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더욱 先生님을 崇仰하고 그리워
하게 되는 現實에서 살고 있는 까닭입니다.

先生님! 今年 末에는 大選이 있고 來年 4月에는 總選이 施行됩니다. 先生님의 哲學
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周邊에서는 急進性이나 極端性
이 판을 치고 있고 때로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迷路에 서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先
生님의 政治理念과 리더십이 새삼스럽게 그리워지는 것은 當然하다고 아니 할 수 없
습니다.

우리들은 古下 精神을 가끔 떠올리고 있습니다. 古下 精神은 慎重性·豫見性·自立性·
自主性으로 集約된다는 것이 저의 所見입니다. 先生님의 慎重性은 生前에 取하셨던
言行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시는 慧眼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羨望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自力으로 自立하고 모든 경우에 自主性이 있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는 더욱 그 眞價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潘基文 外敎通商部長官이 UN 事務總長으로 選出되고 韓美 FTA가 妥結된 것은 盧
武鉉大統領의 리더십 德分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意味에서는 歷史的인 事件임에 틀
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解決해야 할 課題들이 山積해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右往左往하는 것이 現實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세 가지 반가운 報告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紀念事業會에서 오랫동안
推進해왔던 「古下宋鎮禹先生 潭陽 生家復元 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로 현지에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의 하나가 現實化된 것이며 先生님 生
家を 聖域化해서 애국심 고취와 國民教育의 場으로 活用하게 될 날이 가까워진 것입
니다. 여기에는 우리 紀念事業會 理事로 活躍해 오신 金昶植 前장관님과 長孫이신
宋相現 박사의 勞苦가 컸음을 말씀 올립니다.

둘째로는 金學俊 東亞日報社長이 이번에 다시 社長職에 連任됐다는 事實을 報告 올
립니다. 先生님의 遺訓을 받들고 東亞日報社를 멋있게 끌어 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시다마는 金사장은 훌륭하게 難關을 克服해 왔습니다. 오늘날 東亞日
報가 우리들에게 안겨 주는 希望과 激勵은 대단한 바가 있습니다. 先生님께서도 크게

만족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셋째로는 長孫인 宋相現박사에 關한 報告입니다. 宋박사가 國際刑事裁判所 裁判官으로 選出되어 猛活躍中이라는 사실은 前에도 報告올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네덜란드 헤이그 所在 國際刑事裁判所에서 단연 頭角을 나타내고 世界의 正義와 平和를 위해 앞장서고 大韓民國의 國威를 遺憾없이 宣揚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宋박사는 2005年 12月 8日 우리나라 産業資源部 貿易委員會委員長으로 委囑되어 서울과 헤이그를 오가며 그야말로 超人的인 活躍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奔忙한 중에서도 先生님에 대한 宋박사의 孝心은 대단하여 우리들에게 感動을 주고 있습니다.

先生님께서 언제나와 같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계속 돌봐 주시기를 祈願하면서 追慕의 人事를 마치겠습니다.

2007. 5. 8.

紀念事業會 理事長 權彝赫 올림